

# 영어 예열 지문: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번

Q.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Even if it is correct to say that we **express and represent** our thoughts in language, / it may be a big mistake to suppose that there are structural similarities between ①[what **is doing** the representing] and ②[what is represented]. Robert Stalnaker, in his book Inquiry, suggests an analogy with the representation of numbers: ①[The number 9 **can be represented** as '12-3'] but it does not follow that ~②[12, 3, or subtraction are constituents of the number 9]. / ①[We could **compare** a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with toothpaste and its 'expression' from a tube]. That the result of expressing toothpaste is a long, thin, cylinder does not entail that ~②[toothpaste itself is long, thin, or cylindrical]. / Similarly, ①[a thought might get **expressed out loud** in a statement with a particular linguistic structure]. It does not follow that ~②[\_\_\_\_\_]. / Suppose, for example, that I look at a fruit bowl, and think that there is an apple and an orange in that bowl. ①[The objects in front of my eyes **include** some pieces of fruit and a bowl], but no object corresponding to ~②[the word 'and' exists either in the world or in my visual image]. [3점]


\* dispositional : 성향적인 \*\* testimonial : 증거

①과 ②에서의 차이점은 ①에 'is doing'이 있다는 점이고, [시각적 차이] 이를 의미로 확장한다면 ①에 '어떤 행위'가 포함된다는 것이다. [의미적 차이] 그래서 '행위'를 포함하는 단어들은:

- express and represent
- can be represented
- compare
- expressed out loud
- include

그리고 ②에 해당하는 것들은 '인간의 행위'와 무관하게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~②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'인간의 행위'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, '인간의 행위'와 무관한 표현(what is represented)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.

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:

①	대상 (표현 그 자체)	9	치약	
②	행위를 통한 표현	12-3	길고 얇은 원통형	과일과 그릇
~②	표현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	12, 3, 12-3	'길다', '얇다', '원통형'	'과'

~②의 내용이 ①에서 확인할 수 없는 ②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밑줄 친 문장이 포함된, 내용 문태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Similarly, ①[a thought might get **expressed out loud** in a statement with a particular linguistic structure]. It does not follow that ~②[\_\_\_\_\_].

위 문장에서 큰소리로 표현된 **stemaent**를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:

it is correct to say that we **express and represent** our thoughts in language  
생각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 영어 예열 지문: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번

이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생각하면서, 이 내용을 공인된 EBS 해설을 읽어봅시다.  
그리고 해석과 선택지 역시 천천히 읽어봅시다.

## EBS해설

생각은 언어라는 표현 수단을 이용해 표현되지만, 둘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, 마찬가지로 특정 언어 구조를 지닌 진술로 생각을 표현했다고 해서 생각도 그 언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. 따라서 ① '생각 그 자체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'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.

## 해석

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'표현하고' '나타낸다'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, 표현을 하고 있는 것(언어)과 표현되고 있는 것(생각)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일지 모른다. Robert Stalnaker는 자신의 책 'Inquiry'에서 '숫자들'의 표현으로 한 가지 비유를 보여 준다. 숫자 9는 '12-3'으로 '표현될' 수 있지만, 결과적으로 12, 3, 또는 '빼기'가 숫자 9의 '구성 요소들'은 아니다. 우리는 생각과 그것의 언어적 표현을 치약과 튜브에서 그것이 '나오는 것'과 비교할 수 있다. 치약을 짜낸 결과가 길고 가는 원통형의 물건이라는 것이 치약 그 자체가 길거나, 가늘거나, 아니면 원통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마찬가지로 생각은 특정 언어 구조를 지닌 진술로 소리 내어 표현될지 모른다. (하지만) 결과적으로 생각 그 자체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. 예를 들어 내가 과일 그릇을 보면서 그 그릇 안에 사과와 오렌지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라. 내 눈앞에 있는 물체들에는 과일 몇 조각과 그릇이 포함되지만, '~와'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어떤 물체도 세계나 나의 시각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다.

## 선택지

- ① the thought itself has such a structure
- ② linguistic analysis of a thought is unlikely
- ③ the language in mind lacks a logical structure
- ④ a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are distinct
- ⑤ the sentence structurally differs from the thought